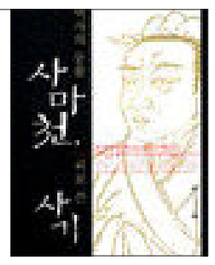
북스

Books

새털처럼 가벼운 죽음 대신 태산보다 무거운 삶을 택해 붓으로 역사를 창조하다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 쓴 사기' 김영수 지음



'용문의 신령스러운 기운이/사람 중에서 용을 길러냈구나./전례 없는 풍요로운 학식과/견줄 자 없는 문장이여./인재를 아타까워하다 치욕스런 형벌을 받고/그 기세로 붉은 무지개를 토해냈구나./그 공과 업적, 공자의 뒤를 이어/천추에 길이 남을 태사공이여!'

중국 섬서성 한성시에 있는 사마천(B.C.145~B.C.86) 사묘(사당과 무덤)의 묘비에 쓰여진 시다. 시에 등장하는 '붉은 무지개'는 중국 상고시대에서 한나라 무제까지의 역사를 포괄한 역사서 '사기'를 뜻한다. 사마천은 남자로서 가장 치욕스런 궁형(宮刑)을 받으면서도 아버지 사마담이 시작한 '사기'의 저술을 포기하지 않았다.

기원전 90년에 완성된 '사기'는 3천년의 중국 역사를 52만6천200자로 썼으며, 이후 중국 정사(正史)를 기술하는 기본체가 된 기전체(紀傳體)가 처음으로 사용됐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기전체 형식을 취했다. 기전체란 본기(本紀)·열전(列傳)·지(志)·연표(年表) 등으로 구성해 서술하는 역사서술 방식을 말한다.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 쓴 사기'는 역사학자 김영수씨가 10여년 동안 사마천의 고향과 무덤 뿐 아니라 '사기'에 등장하는 곳곳을 발로 누빈 뒤 사마천의 삶을 재조명했다. 저자는 책머리에 "어떻게 2천100년 전에 전무후무한 역사서가 나올 수 있었을까? 사마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술을 적극 지원하고도 궁형을 내렸던 한무제와 사마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등 끊임없이 떠오르는 의문들" 때문에 책을 쓰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1장 '사마천의 고향을 찾아서'는 저자가 네 차례에 걸쳐 중국 한성을 찾아 사마천과 관련된 문화유적을

중국 섬서성 한성시에 있는 '사마천 사묘'의 원경.

사마천이 궁형을 당한 뒤 '사기' 저술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 '사마천생평화전람관'에 전시돼 있다.

돌아보고 쓴 취재기 형식을 띠고 있다. 저자는 중국 방문 당시 사마천의 고향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인연이 돼 외국인 최초로 '사마천학회' 정회원이 되기도 했다.

2장 '붓으로 역사를 창조한 사마천'은 사마천의 생애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평전이다. 사마천의 집안 내력을 분석한 연보도 실려 있다. 저자는 사마천의 일생이 곧 '사기'의 내용과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3장 '시공을 뛰어넘는 역사학의 추, 사기'에서는 '사기'의 체제와 그 내용 및 특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사마천이 '사기'를 통해 보여준 것은 바람직한 인문학적 지식인 상의 전형"이라며 깨달음과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의 일치를 통해 지식인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문학 위기론'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지금 우리에게 사마천과 '사기'가 주는 교훈은 유명 역사가와 역사서 이상이다.

〈창해·2만8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감춰질 뻔한 고문의 역사

박원순 '야만시대의…'

우리나라 시민운동을 주도해 온 인권변호사 박원순씨가 한국 현대사회에서 자행됐던 고문의 역사를 한 데 묶었다.

'야만시대의 기록'(전 3권)은 저자가 10여년에 걸친 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해 빛을 본 1천600여쪽 분량의 노작이다. 1부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에서는 고문의 사회·역사적 의미와 특징, 고문의 구조와 다양한 기법 등을 고찰했다.

2부 '일제시대에서 박정희 정권까지'는 지속적이고도 일상적으로 우리의 주변을 유린했던 고문의 실체와 사례들을 담았다. 3부 '전두환에서 노무현 정권까지'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가장 많은 고문조작을 낳았던 전두환 정권과 그 연장선 상에 있는 6공화국의 인권탄압 사례들을 묶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여전히 계속되는 가혹행위와 미군의 고문 실태 등을 함께 실었다. 〈역사비평사·1,2권 2만5천원 3권 3만5천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연'을 끼워넣자

© 2001, Julian Broad in London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황대권 지음

'사랑의 빛은 남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랄 때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나오는 빛입니다. 민들레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들판이 아름다운 이유도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온갖 꽃과 풀들이 서로 어울려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중에서 자신이 돌봤던 야생초 이야기를 묶은 '야생초 편지'로 독자들에게 친숙한 황대권〈사진〉씨가 펴낸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나눔과 생태주의적인 삶을 화두로 세상에 띄우는 또 하나의 편지다.

'야생초 편지'가 감옥 안에서 바깥 세상을 본 것이라면, '민들레는…'은 저자가 바깥 세상에서 느낀 세상공부, 마음 공부를 진솔한 언어로 풀어놓은 산문집이다.

'풀빛문화연대'와 '생명공동체 운동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황 씨는 기계문명과 물신주의로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들에게 이웃과 함께하는 '느린 삶'을 권유한다.

'이제부터라도 '곡선회복운동'을 벌여야 한다. 지난 시절 구부러진 도로를 무조건 직선으로 고칠게 아니라 그 곡선 속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애환과 정서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생명의 문화이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저자는 '현 시대에서 두발을 진흙탕 속에 담근 채 맑은 영혼과 몸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진정한 삶의 비결은 '깨어있음'에 있다고 강조한다.

깨어있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고뇌하는 지식인에서 벗어나 '사바 세계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처럼' 수행하는 지식인으로 거듭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각박한 논리로 세상을 풀어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연'을 끼워넣으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너와 나 사이에 자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갈등은 조정될 여지가 생기고 또 자연으로부터 새로운 기운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소유와 소비의 기준을 낮추고 현 사회체제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개량하는 움직임과 생태공동체 운동이 동시에 시도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열림원·9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i

▲스위스 예술기행=큐레이터 출신 이수영 씨가 스위스의 예술을 소개한다. 스위스는 세계적인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스위스의 갤러리와 박물관, 미술관을 따라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 미술을 만날 수 있다. 〈시공아트·1만5천원〉

▲월트 디즈니 VS 미야자키 하야오='두 인물'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VS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만화 평론가 박인하 씨가 세계적인 만화 거장을 비교 분석한다. 꿈과 환상을 선사한 사업가 월트 디즈니와 인간 가치를 꿈꾸게 하는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과 생애를 살펴본다. 〈숨비소리·7천원〉

▲소금바다로 가다=김명인 시인이 첫 번째 산문집을 펴냈다. 그동안 여덟 권의 시집을 통해 질박한 우리네 삶을 그려왔던 시인은 이번 산문집에서 시를 쓰는 원천이 됐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잃어버린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본다. 〈문학동네·9천원〉

▲가자(GAZA)에 띄운 편지=2003년 9월 9일 일어났던 테러를 계기로 쓰여진 소설. 저자 발레리 제나티는 이스라엘 소녀 탈과 팔레스타인 소녀 나임의 우정을 통해 분노와 증오의 땅인 가자에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낭기열라·8천500원〉

▲아파트 경비원=명퇴후 아파트 경비원을 지낸 이응수 씨가 아파트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현대인의 모습을 흥미롭게 담아냈다.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 사랑을 고백하는 청년,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선생님, 애인에게 몰래 아파트를 얻어준 한 남자를 통해 삶의 풍경을 전한다. 〈마음의숲·9천원〉

▲조용헌 살롱=칼럼니스트 조용헌이 조선일보에 연재한 글들을 엮은 책이다. 저자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문(文), 사(史), 철(哲), 유(儒), 불(佛), 선(仙), 천문(天文), 지리(地理), 인사(人事)를 통해 찾는다. 〈랜덤하우스·1만2천원〉

▲헤르만 헤세의 독서의 기술=위대한 작가 헤르만 헤세가 직접 전하는 독서론이다. 작가이기 전에 '독서가' '책벌레' '애서가'로서의 헤르만 헤세를 만날 수 있다. 헤세의 수많은 에세이 가운데 책과 도서에 관한 것만 24편이 수록돼 있다. 〈뜨인돌·1만2천원〉

▲어느 저널리스트의 죽음=23년째 저널리스트로 살아가고 있는 손석춘 씨가 뒤틀린 우리 시대 저널리즘의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저자는 비틀린 저널리즘이 사실의 왜곡과 공론자의 위기를 낳았고,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 문제로까지 확대됐다고 강조한다. 〈후마니타스·1만원〉

▲헤밍웨이 VS 피츠제럴드=미국을 대표하는 두 작가 F.스콧 피츠제럴드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우정과 반목에 대해 다뤘다. 전기작가인 스콧 도널드슨은 두 거장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증거자료를 통해 제시하며, 경쟁 관계였던 이들의 우정을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흥미진진하게 전한다. 〈감인공방·1만8천원〉